

아시아의 시급한 금연 대책

윤석우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운영위원

제3차 금연전문가 회의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세계 각국 정부가 회원으로 된 보건관계의 전문기구로서 제네바에 본부를 두며 전세계를 여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 한국은 서태평양지역에 속한다.

WHO는 일찍부터 흡연이 건강에 매우 해롭다고 역설해 왔으며 1986년 5월 세계 보건총회(WHO의 최고 의결기관)에서 직접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유해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전세계 회원국이 금연대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 결의에 따라서 서태평양지역 전문가회의가 그간 일본 동경과 호주의 퍼어스 시에서 두 번 열렸으며 이번의 제3차 전문가회의는 1994년 4월 5일부터 8일까지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는 WHO 사무국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개년('90~'94년)간의 실천사항을 돌아보고 다음 5개년 간('95~'99년)의 지역내 실천계획을 작성하였다.

개 회 식

첫날 개회식은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인 한상태 박사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한 박사는 식사에 이어 서태평양 지역내 각국의 흡연과 건강에 관한 실태를 설명하였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홍콩 등에 서 기간중 좋은 결과를 보인 데 비해 그 외 나라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몇 나라에서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상승한 것이다. 이는 젊은 여성의 흡연율 상승과 함께 가히 큰 관심거리가 된다.

한편 담배생산업자들은 담배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그 시장이 1991년부터 2000년까지 33%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흡연관련으로 오는 질병과 사망은 더 한층 늘어날 것이다.

서태평양지역에서의 담배소비의 증가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즉 인구의 증가, 여성흡연의 증가, 생활에 여유가 생김으로 인해 담배사기가 쉽게 된 것,

특히 청소년층에서 흡연의 유해함을 모르는 것, 담배회사들의 맹렬한 판매전략 그리고 금연대책을 위한 예산과 지원의 부족 등일 것이라고 한 박사는 말했다.

한 박사는 끝으로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금연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하되 담배광고를 아시아에서 하루 빨리 축출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다음에 WHO 본부의 담배와 건강사업 책임자인 코리쇼우 씨도 매우 뜻깊은 연설을 하였다. 그 분의 연설 중 인상적이었던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과거 100년간의 흡연율의 증가와 감소가 담배관련 질병사망률과 어떠한 관계가 있나를 몇 개 선진국에서 비교 연구한 것이다.

즉 흡연율의 증가 후 30년 후에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 미국 등에서는 성인남자 흡연율이 1940년에서 1960년대까지 매우 높았으며 그 후 점차로 내려가고 있다.

그 때문에 폐암사망률도 1970년에서 1980년대까지 아주 높다가 몇 해 전부터 서서히 낮아지고 있다.

이 말을 듣고 귀국한 뒤 금연운동협의 회장인 김일순 교수에게 의견을 물어보니 이러한 현상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즉 현재 흡연율이 매우 높는데(성인남자 약 70%) 차차 내려가더라도 당분간 폐암사망률은 더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 한 가지는 담배소비량의 증가를 고찰한 것이다.

다음 페이지의 표를 보면 1970년에는 세계 5대 담배소비국(성인 한 사람당)으로 쿠바, 미국, 스위스, 캐나다, 영국이 들어갔는데, 1992년에는 이들 나라가 모두 감소한 대신 그리스, 일본, 폴란드, 헝가리, 한국이 등장했다.

한국이 5위에 드는 불명예를 차지함과 동시에 더욱 걱정되는 것은 소비량 증가가 가장 큰 것이다.

▶윤석우 의장이 주 제발표 및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좌로부터 WHO 본부의 코리쇼우 박사, 이루라난달 부의장, 필자, WHO 본부의 에르벤 박사).



세계 5대국의 성인 1인당 담배소비량 비교 (1970년과 1992년)

(1970년)

순위	국 가	1970 담배개비수	1992 담배개비수	1970~1992의 증감
1	쿠 바	3814	2332	-39
2	미 국	3767	2588	-31
3	스위스	3455	2816	-18
4	캐나다	3367	2062	-39
5	영 국	3057	1987	-30

(1992년)

순위	국 가	1970 담배개비수	1992 담배개비수	1970~1992의 증감
1	그리스	2574	3623	+41
2	일 본	2812	3316	+18
3	폴란드	2912	3314	+14
4	헝가리	2749	3237	+18
5	한 국	2145	3050	+42

개회식에서는 내가 의장으로, 그리고 싱가포르의 아루라난담 여사가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주제발표의 하이라이트

जू디스 맥카이 박사는 금연운동의 대가이다. 영국 여성이지만 홍콩에서 30년이나 살고 있어 아시아 지역의 흡연과 건강의 실태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녀가 이번에는 자문위원으로 각국의 흡연과 건강의 실정 및 활동상황을 자세히 보고하였다.

그 보고 중에서 흡연율에 관한 것만을 보면 중국(61.01%), 휘지(59.30%), 일본(50.60%), 한국(68.20%), 마카오(89.0%), 사모아(52.96%), 통가(64.80%) 등이

흡연율이 높은 나라들이다.

일본의 平山雄(히라야마 다케시) 박사는 암의 역학자이며 담배와 암의 관계를 일생 동안 연구한 세계적 석학이다.

그는 자료수집에 관해서 말했으며 담배와 건강의 통계수집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아루라난담 여사는 금연 대책이 국가의 종합적 정책의 주요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의 발전과 실천에 대해 싱가포르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다.

싱가포르에서 금연대책이 성공한 것은 정부에서 이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보건교육을 철저히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최고지도자의 강력한 추진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1995~1999년간의 담배와 건강사업의 실천계획

회의기간의 후반은 다음 5개년간('95~'99년)에 서태평양지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룹토의를 통해서 그 실천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집중되었다.

이 계획안은 문서로 작성되었는데 서론에서는 금연의 이점에 대해 말했으며 '90~'94년간의 실천계획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다음 5개년간의 주요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금연 대책은 종합적 국가 정책과 계획으로 포함시켜 이를 실천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국가적 협력체와 책임담당부서가 확립되어야 하며 민간단체의 설립과 육성이 강조된다.

둘째는 자료와 통계수집이 미비한 나라는 이를 실시하되 모든 회원국이 최소한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한다.

셋째는 금연교육을 적극적으로 널리 실시하되 특히 학교교육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는 입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담배 광고를 강력히 그리고 전면억제하며 이에 각국이 협력해서 2000년까지는 모든 담배광고가 이 지역에서 자취를 감추게 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담배광고는 모든 광고매체에서 사라지고 담배와 연관된 스포츠, 음악회 등 행사도 사라져야 한다.

그 외에도 담배가격 대책이 포함되었

다. 담배가격이 오르면 흡연율이 떨어지고 특히 청소년 흡연율이 내려간다는 것을 여러 나라에서 경험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담배판매세 수입의 일부를 보건사업, 특히 금연대책에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회의를 마치고

바쁜 일정을 끝내고 4월 8일 오후에 폐회식이 있었다. 한상태 박사는 WHO 측을 대표해서 참석자들의 노고를 축하했으며 중국의 이 박사는 참석자 일동을 대표해서 이 회의가 매우 뜻있고 생산적이었다고 말했다.

나는 의장으로서 WHO 직원과 참석자 전원이 시종일관 열성적으로 회의에 임했으며 특히 한 박사의 개인적인 열의가 컸음을 감사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이 우리 회의의 마지막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활동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면서 폐회를 선언하는 사회봉을 두드렸다.

닷새 동안의 분주하였던 회의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하였다. 보건인으로서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전염병을 없애고 가족계획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은 많다. 그중 금연운동은 하루 빨리 거국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손에 손을 잡고 전개해야지 아니면 크게 후회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매년 3만 명이 흡연관련 질환으로 사망한다(교통사고 사망의 두 배)는 사실을 직시하자. 卍